2026년 7월, 출범 확정 제물포구·영종구 서구·검단구	보 도 자 료		이제는 인천입니다 2025 APEC INCHEON
	배포일자	2024년 4월 24일(수) 총 4매	
담당부서 보건환경연구원	담 당 자	• 환경생태과장 전미희 ☎440-5591 • 담당자 최미진 ☎440-5456	
사진(이미지)	☐ 없음 ▣ 있음	참고자료	▣ 없음 ☐ 있음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인천시, 다중이용시설에 레지오넬라 환경 검사 실시

- 환경 검사 대상 확대, 현장 대응형 사전교육 추진으로 체계적 관리 -

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레지오넬라증 예방 및 조기인지를 위해 5월부터 종합병원, 대형 건물 및 공동주택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 환경 검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.

레지오넬라증은 온도가 높고 습한 환경에서 레지오넬라균에 오염된 물이 에어로졸 형태로 전파되는 질환으로 독감이나 폐렴 형태의 일반적 호흡기 감염병으로 오해할 수 있고 원인 확인이 어려워 예방적 환경 관리가 필요한 법정 감염병이다.

2023년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추진한 레지오넬라 환경 검사 검출률은 1,869건 중 5.9%로 2022년 검출률 7.3%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이에 따른 레지오넬라증 발생률 역시 0.67(인구 10만 명당)로 전국 평균 0.89 보다 낮아져 냉각탑과 급수설비 등 주요 시설의 지속적 점검 효과를 확인했다.

특히 지난해 원도심 공동주택 60개소 집중 조사에서, 같은 지역 다중

이용시설 검출률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 올해는 인천 전 지역으로 확대된 공동주택 표본 점검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.

또한 시설의 점검·관리를 맡은 일선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현장 대응형 사전교육도 새로이 추진해 한층 강화된 예방 체계를 갖춘다.

권문주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“레지오넬라증은 일반적 수인성 감염병과는 그 경로가 다른 급성 호흡기질환으로 대상 시설의 환경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”며 “앞으로도 다양한 현장 연구 결과를 연계한 예방 대응을 위해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(관련사진 1) 레지오넬라증 주요 증상 및 예방수칙 카드뉴스 (출처 : 질병관리청)
(관련사진 2) 레지오넬라 환경검사
(관련사진 3) 군·구 레지오넬라 환경검사 담당자 사전교육

<관련사진 1> 레지오넬라증 주요 증상 및 예방수칙 카드뉴스 (출처 : 질병관리청)

<관련사진 2>

레지오넬라 환경검사

<관련사진 3>

군·구 레지오넬라 환경검사 담당자 사전교육